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윤 매 옥*·박 정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의 대상은 인간이다.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므로 한 영역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인간의 영적인 차원은 각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경험 할 때 보상이전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Fish & Shelly, 1978). 인간은 영적인 차원을 통하여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초월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Seaward, 1991). 특히 삶의 위기와 말기질환으로 고통에 처해 있는 말기암환자인 경우 평소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실존적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현실에서의 진실 된 의미와 적응전략을 찾는다(Taylor, Amenta & Highfield, 1995). 이러한 위기와 고통을 극복하는 말기암환자들은 다양한 영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며 말기암환자의 실존적, 영적 위기에 처했을 때 영성은 안녕감을 강화하고 개인의 대응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Reed, 1992), 삶을 마감하는 변화의 과정에 평안과 사후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역동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전인적 인간이해와 돌봄에 기초하여 말기암환자들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적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연구와 실무에서도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자는 지난 10여 년 간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말기진단을 받고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 환자를 간호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평온하고 충만 된 삶, 그리고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돌봄을 갈망하는 현상을 지켜 보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체적인 간호에 우선하며 정서적인 간호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영적인 측면의 간호는 어떤 특정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환자를 전인적으로 보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인간의 생리적인 측면에만 국한 되어있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만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Wright, 1998). 또한 영적 간호의 기본 개념인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의료인들의 이해와 인식부족에 따른 영적 개념의 추상성(McSherry & Draper, 1998), 심리적 영역과의 구별의 난해함, 종교적 개념과의 혼용 및 과학적 회의론(Elkins, James, Hughes, Andrew & Cheryl, 1988) 등으로 간호이론과 연구에서도 영적 측면이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말기암환자들의 영적 측면을 어떻게 접근하고 간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과 방법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영적 간호에 어려움이 더욱 많았으리라 보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간호와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영성 개념분석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Burkhardt, 1989; Haase, Britt, Coward, Leidy와 Penn, 1992; Howden, 1992; Reed, 1992; Goddard, 1995; Meraviglia, 1999; Kim과 Lee, 1998; Oh와 Kang, 2000; Min, 2001; Lee, 2002)의

*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교신저자 E-mail : maerihospice@hanmail.net)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연구와 영성체험에 대한 연구로는 (Burns, 1989; Burkhardt, 1991; Trice, 1985; Barker, 1989; Oh와 Kang, 2001)이 수행되어 왔으며, 영적 간호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영성체험을 근거로 한 실제적인 이론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말기암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영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국내외 선행연구와 더불어 영적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말기암환자가 경험하는 영성체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내재된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여 말기암환자가 평화롭고 충만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말기진단을 받고 죽음을 앞에 둔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을 통하여 영성개념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말기암환자에 적합한 영성 사정도구의 개발과 영적 간호중재의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 1)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을 이해한다.
- 2)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적 간호중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 3)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을 현상학적으로 밝혀 영적 간호를 위한 실무와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말기암환자가 간호현상에서 체험하는 영성을 탐색하고자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주시에 소재하면서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살 수 없으며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자로서 말기암환자로 본 연구에 동참하기로 동의한 참여자 6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선

정은 말기암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영성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므로 연구주체에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최대의 변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면담 내용이 녹음될 것이며 녹음 테이프는 연구 후 파괴할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1월까지였으며 각 대상자별로 수 차례씩 총 50회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참여자의 개별적인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고 연구자는 면담 전에 수 차례의 방문을 통해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40분으로 평균 1시간정도이었다. 면담과 면담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3-6일이었다. 면담은 참여자가 치료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였으며, 참여자가 긴장을 풀고 편안히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병실에 스크린을 쳐주고 쾌적한 공기, 온화한 느낌을 갖게 하는 병실분위기, 연구자의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바를 말씀해주시요.”라는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방법은 개방적이고 비 구조적인 질문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느낌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네, 그렇군요.” “음, 그래서요.”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경청하였으며, 참여자의 영성체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담이 중단될 때에는 연구자의 선입견이 참여자의 서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손을 잡아주거나 팔다리 마사지, 음료 제공 등의 가벼운 신체적 간호와 이완, 명상 등의 심리적 안위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였으며, 대화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격렬한 감정 표출 시에는 무비판적인 태도로 수용해주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면서 관찰하였다. 자료수집은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글로 옮겼으며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주변환경, 소지품 등의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음절차를 따라 분석하였다.

- 1) 면담내용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듣거나 읽었다.
- 2) 문자화 된 진술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으려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 3) 의미 있는 진술을 참여자의 일반적인 언어로 재 진술 (general restatement)하였다.
- 4)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형성하였다.
- 5)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s)와 주제모음 (theme clusters)으로 분류하였다. 이때에도 원 자료와의 일치, 모순여부를 확인하였다.
- 6)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 7) 최종적 진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돌아가서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Sandelowski(1986)의 질적 연구평가 기준인 신뢰성, 적합성, 일관성, 중립성을 이용하였다.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담 시작 전에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을 중요시하였으며 녹음테이프의 말을 그대로 문자화하였고 참여자 특성상 녹음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담 직후 현장 노트에 기록하여 분석시 활용하였으며 진술문에서 의문이 있는 내용은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였다.

자료분석의 결과는 1명의 신학자와 현상학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게 감사성을 평가받았다. 연구의 감사가능성 확립을 위해서 자료수집 절차를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Colaizzi(1978)가 제시한 자료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종합병원에서 20여 년간 임상간호를 경험해 왔으며, 그 중에서 10여 년간은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병원과 가정에서 말기암환자 간호를 해 오는 동안 영적 고통을 가지고 죽어 가는 자들을 매일 지켜보면서 이들이 경험하는 영적 현상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하게 느껴왔다. 그리고 영적 간호중재가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 불안,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가톨릭대학에서 1년간 호스피스 전문 교육과정, 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및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 학술 세미나에 매년 참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3

학점을,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과 이론 개발에 대해 3학점을 각각 정규과목으로 이수하였고, 간호연구방법 워크샵에 16시간 참석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모임에 참석하여 현상학과 관련서적을 연구하면서 현상학적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연구모임의 구성원들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해 토론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익혀왔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수는 6명으로 하였으며, 남성 3명, 여성 3명이었고, 나이는 60대 남자 1명, 50대 남녀 1명씩, 40대 여자 2명, 30대 남자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 6명의 평균 나이는 43세이었고, 최소 33세이며, 최고 69세 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5명, 미혼 1명이었고, 교육정도는 초졸 1명, 중졸 1명, 고졸 2명, 대졸 2명, 종교는 기독교 3명, 천주교 2명, 무교 1명이었다. 진단 명은 폐암이 2명, 간암 2명, 위암 1명, 자궁암 1명이었다.

2. 의미의 구성

6명의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을 나타내는 구술내용으로부터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은 총 150개였고, 참여자들의 각 현상을 모두 표현하였으며, 그 예가 제시 되어있다<Table 1>. 이는 각 참여자의 구술내용에서 의미 있는 단어, 구, 문장을 추출하여 표현을 그대로 살려 의미 있는 진술로 나타냈고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주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자의 언어로 요약하여 총 90개의 의미를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직관과 분석기술을 사용하여 원 자료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면서 참여자 의도를 명확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다음단계에서는 영적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구성된 중심의미는 동일종류의 의미끼리 모여서 3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Table 2>, 이를 추상화와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11개의 주제모음을 형성하였다<Table 3>. 주제모음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말기암환자가 경험하는 영성체험의 본질이다.

<주제모음 1>의 복합적인 정서는 절대자, 인간, 질병

<Table 1 > 구성된 의미(일부 예)

의미 있는 진술	구성된 의미
1. “병에 걸린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당장 죽고싶은 마음으로 울기만 했는데...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당장 죽게 되었다면 지난날을 돌아볼 기회도 삶을 정리할 수 도 없었을 거고...”	말기진단을 통해 분노와 절망상태에서 자아성찰로 변화되어 감을 느낌
2. “ 죽을병에 걸리고 나니 앞길이 캄캄해지고 한계를 느끼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없고 ... 평소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 생각나고 그 분만 찾아요...암제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요.”	위기상황에 자아를 발견하고 절대자를 의지하게 된다.
3. “ 어떤 것은 후회스럽고 죄도 많이 지은 것 같고... 뒤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돌이켜보며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맘먹고 있어요...”	지난 일을 반성하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다짐한다.
4. “세례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라도 갈 준비가 되어있어요...그곳은 고통이 없을게요 영원한 곳...”	성례 후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바라보며 죽음을 받아들인다.
5.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일을 생각나는 대로 터놓고 용서를 구했는데...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일들이 더럽고 추한 모습 이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악 된 일을 절대자 앞에서 고백하여 용서함 받고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한다.
6. “몸뚱이가 너무 아플 때는 죽고싶은 심정..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생각하면서부터 고통에서 건널 수 있게 되었지...”	십자가상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이 겪고있는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7. “ 가족을 놓고 먼저가게 되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남은 가족 생각하면 정말 피로했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감사해요.”	가족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미해결된 가족의 일이 호스피스를 통해 역동적 지지가 이루어진다.
8. “ 몸 아픈 거 두렵지 않고 내 영이 새것으로 탈바꿈되어 나비처럼 자유롭게 피어났으면 하는 게 꿈이지...”	부활의 기쁨과 영혼의 아름다운 삶을 열망하고 있다.
9. “ 먼저 가게되어 미안해요. 저렇게 좋은 곳을 놓고 안 갈 수 없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래요. 우리 저 아름다운 곳에 가서 만나도록 해요.”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며 큰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얼굴엔 생기가 넘치며 눈은 위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표정을 지음)	죽음을 앞에 놓고 천국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이별이 필연임을 강조하며 재회를 약속한다
10.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면 난 천사가 되어 갈 수 있을 거예요.”(신기하고 경이의 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로 새로운 현상을 바라봄)	기도와 찬송을 불러주어 아름답고 평안하고 위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원한다
11. “ 찬송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편해지고 곁에서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면 말 할 수 없이 좋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요...회개와 감사의 표현일거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며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 Table 2 > 주제모음 중 “의미추구” 주제모음 추출(일부 예)

주제모음	주 제	구성된 의미
의미 추구	1. 고통의 의미	1) 십자가상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2) 신앙을 갖게 되고 자아성찰을 하게된다. 3) 고통의 과정에서 삶의 변화가 있음을 깨닫는다.
	2. 죽음의 의미	1) 죄 사함을 받고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된다. 2) 육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느낀다. 3)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삶의 완성이다.
	3. 삶의 의미와 목적	1) 신앙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2)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한다. 3) 삶의 소중함과 참다운 가치를 발견한다.

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인 정서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병에 걸린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가족에겐 원통하고 당장 죽고싶은 마음으로 울기만 했는데...”

“ 어린 자식을 두고 이렇게 나만 떠날 수는 없어요... 뭔가 할 일을 해놓고 가야할텐데...”

“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리라

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의사에게 주시면 의사를 통해 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어요.”

“ 어디론가 사라진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두렵기만 해요.”

“ 의지할 곳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 같고 기도하면 맘 비워지고 죽는 것도 아버지 뜻에 맡겨져요...”

<Table 3> 영성체험과 관련된 주제모음

주 제 모 음	주 제
1. 복합적인 정서	1) 절대자에 대한 역설적인 정서 2) 인간에 대한 역설적인 정서 3) 질병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인 정서
2. 영적 인식	1) 죽음을 인식하며 영적 자각을 통한 자아성찰을 경험함 2) 질병의 위기상황에서 절대자를 의지함
3. 삶의 회고	1) 삶을 되돌아보며 남은 삶을 재인식함 2)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다짐함
4. 죽음의 수용	1) 자신의 현실을 인정함 2)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믿으며 죽음을 수용하고 준비함
5. 용서	1) 절대자로부터 죄 용서함 받음 2) 불목관계의 이웃과 화해함 3) 절대자이웃과의 관계 회복
6. 의미 추구	1) 고통의 의미 2) 죽음의 의미 3) 삶의 의미와 목적
7. 사랑과 관심	1)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확신감 2)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3) 자신과 가족을 향한 지지에 감사함 4)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을 기뻐함
8. 내세의 소망	1) 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사후세계를 동경함 2) 고인이 된 가족과의 만남을 그리워 함 3) 부활의 기쁨을 기다림
9. 초월적 에너지	1) 고통을 능히 극복함 2) 미완성된 문제를 긍정적으로 승화함 3) 사후세계를 보면서 기뻐 춤추며 찬양함
10. 평화로운 임종 염원	1)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있고 싶어함 2) 지속적인 기도와 찬송을 부탁함 3) 신기하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위를 바라봄 4) 아름답고 품위 있는 임종을 기원함
11. 평온과 안위	1) 신체적 고통을 극복하며 평안함을 느낌 2) 영적 지지를 통해 충만함을 느낌 3) 천사의 현몽을 경험함 4) 새로운 것의 발견을 기뻐함

이상의 진술에서 대상자들은 절대자, 인간, 죽음에 대해 복합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절대자를 원망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절망상태에서 결국은 절대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또한 죽음을 수용하다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 육체의 소멸에 대한 허탈감을 가지고 건강회복에의 희망을 갖기도 하였다.

Lee(1995)의 연구에서는 불안 반응과 복잡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끝까지 부정과 분노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으로 독특하고 복잡한 정서를 보였으며 Choi(1991)는 죽음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태도는 죽음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타협, 회복에의 기대 및 소망의 기전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다시 생명연장을 보이며 죽음에 대해 두려움과 절대자, 인간에 대한 복합적인 정서를 보이지만 삶의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변화로써 결국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모음 2>의 영적 인식은 죽음을 인식하며 영적 자각을 통해 자아성찰을 경험함, 질병의 위기상황에서 절대자를 의지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지난 생활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잔즉 믿음을 가졌다면 더 좋은 삶을 이루었을 텐데...”

“ 죽을병에 걸리고 나니 앞길이 캄캄해지고 한계를 느끼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없고 ... 평소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 생각나고 그 분만 찾아져요...”

본 연구 결과 암 진단에 충격을 받으며 신앙의 필요를 절감하였으며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의 위기에서는 신앙의 유무와 관계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이해 범위를 초월하여 절대자를 찾게 되며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Oh와 Kang(2001)은 영적 인식은 중요생활 사건과 더불어 자기성찰의 경험을 통해 상위 존재자와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고 하였으며, Lee(2002)는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초월하도록 절대자를 찾고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통해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을 밝혔는데 이는 본 연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주제모음 3>의 삶의 회고는 삶을 되돌아보며 남은

삶을 재인식함,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다짐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이런 병에 걸린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만 살았지요.”

“ 지난 시절 힘들었던 때가 많았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일들도 많았어요. 어떤 것은 후회스럽고 죄도 많이 지은 것 같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며 이제부터라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맘먹고 있어요. 뭔가 가치 있는 세월로요. ”

Lee(1995)는 말기암환자는 삶을 회상하면서 가족과 의료인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거나 절대자를 원망하면서도 의지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삶을 회상하면서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지만 보람 있던 일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며 남아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다짐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 삶의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모음 4>의 죽음의 수용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함,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믿으며 죽음을 수용하고 준비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세례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난 언제라도 갈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곳은 고통이 없을게요 그 곳은 영원한 곳...”(가족 앞에서)

“장례는 경제적으로 하고...시신은 화장으로 해 줘요. 예배 주관은 세례 해준 목사님한테 맡기고 싶어요.”

본 연구에서는 세례를 받은 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있음을 알고 사후 시신 처리와 장례에 대해서도 얘기하며 유언함으로 죽음을 잘 수용하고 있었다. Choi(1991)의 연구결과에 제시한 죽음 수용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모임 5>의 용서는 절대자로부터 죄 용서함 받음, 불목관계의 이웃과 화해함, 절대자 이웃과의 관계회복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나는 대로 터놓고 용서를 구했는데...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모습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 모두 다 내 놓고 용서받아서 정결하게 씻어졌음을 믿어요.”

“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날 기막히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 평소 보기도 싫었는데 화해하고 나니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는걸요.”

이상의 진술은 지나온 자신의 삶이 의롭지 못하고 죄의식에 놓여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타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됨을 시인하여 용서를 구하며 자신보다 타인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성경에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1John 1:9)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확연하게 인식되고 깨닫게 되며 이는 절대자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임을 본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주제모음 6>의 의미추구는 고통의 의미, 죽음의 의미, 삶의 의미와 목적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몸뚱이가 너무 아플 때는 죽고싶은 심정..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생각하면서부터 고통에서 건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어요.”

“ 뼈를 도려내는 통증이 오게 되면 미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서 속히 날 가게 해 달라는 비명만 지를 뿐, 정말 한 순간도 견디기 어려워요...”

“ 이젠 내 몸 아픈 게 두렵지 않고 내 영이 새것으로 탈바꿈되어 나비처럼 자유롭게 피어났으면 하는 게 꿈이에요...”

“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시련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살아야하는 이유,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었어요. 죽음이란 게 그리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말기암환자의 고통의 의미는 생애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신체 통증을 동반한 전인적인 고통으로서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며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게 되

고 죽음의 의미까지도 깨닫게 되면서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 마음 비우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것만도 귀한 일이겠지요...”

“ 짧은 시간 무언가 도움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마음두니 한 순간 한 순간이 소중하다 생각 들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소중하고...함께 여행도 하고...하고싶은 말도 하고...”

또한 말기암환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려 하였고 가족과 함께 남은 생을 보람 있게 보내면서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h와 Kang(2001)은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는 상위 존재자와의 관계회복과 사랑체현 및 상위 존재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전제조건에서 설정됨을 밝혔는데 이는 본 연구와도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모음 7>의 사랑과 관심으로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확신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자신과 가족을 향한 지지에 감사함.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만남을 기뻐함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내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하고 사랑 받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어요.”

“ 선생님께서 내 손을 꼬옥 잡아주니 정말로 행복해요. 오늘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가족을 놓고 먼저가게 되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남은 가족 생각하면 정말 괴로웠는데... 이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의탁했어요...이렇게 우리가족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선생님들 감사해요.”

이상의 진술에서 말기암환자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솔직하게 터 놓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 곁에 함께 있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가장 내면의 문제를 공유하며 지지해 주길 원했는데 우선은 신앙과 믿음을 토대로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절대자 하나님과 이웃과의 상호지지 체계에서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지지감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지적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삶의 질은 향상되며 감사와 만족감을 또한 느낄 수 있었다.

Lee와 Lee(2001)는 말기환자에 대한 요구와 태도는

가족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것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라고 하였다.

“ 이렇게 죽을병에 걸려 쓸모 없게 된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일 이예요.”

극도의 질병에 처한 자신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있다는 경험과 남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경험은 최고의 사랑과 지지감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h와 Kang(2001)은 사랑은 관계성의 회복과 상위 존재와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사랑 그리고 이웃과 자연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최고의 영성상태라고 제시했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해 주고 있다.

<주제모음 8>의 내세의 소망으로는 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사후 세계를 동경함, 고인이 된 가족과의 만남을 그리워 함, 부활의 기쁨을 기다림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살아온 것들이 다 허무한 걸 알겠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누구나 한 번 왔다가 가야하는 건 당연한 진리지...”

“ 천국가면 새처럼 날면서 살 일이 기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 이 다음의 삶이 그리워지고 거기서 펼쳐질 내 모습을 그려보는데...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예요...”

“ 내 몸 아픈 거 두렵지 않고 내 영이 새것으로 탈바꿈되어 나비처럼 자유롭게 피어났으면 하는 게 꿈이지...”

말기암환자들은 신앙 안에서 죽음 뒤에 일어날 부활의 기쁨과 새롭게 펼쳐질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또 하나의 축복으로 표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으며 아름답게 전개될 삶과 자신의 부요한 모습을 “나비”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내세를 지향하는 깊은 영성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주제모음 9>의 초월적인 에너지는 고통을 능히 극복함, 미완성된 문제를 긍정적으로 승화함, 사후세계를 보면서 기쁨 춤추며 찬양함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통증이 올 때 예수님 십자가위에서 죽어 가는 모습을 떠올려봐요. 누군가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

도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평소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와요. 아픈 것도 사라져버린 걸 느껴요.”

“ 당신을 남겨놓고 내가 먼저 가게되어 미안해요. 저렇게 좋은 곳을 놓고 안 갈 수 없는 걸 어떻게요. 이해 해주길 바라요...우린 저 아름다운 곳에 가서 만나도록 해요.”(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며 큰소리로 찬송을 부른다. 얼굴엔 생기가 넘치며 눈은 위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표정을 짓는다.)

이상의 진술에서 대상자들은 극심한 통증과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절대자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 초월적이고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임종환자들은 현실세계와 영혼의 세계인 내세를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게되므로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임종 전 단계의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임종환자의 간호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Choe(2002)는 임종과정동안 어린 시절의 파노라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환상과 같은 경험이 나타났으며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인정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고 밝혔는데 이는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주제모음 10>의 평화로운 임종염원으로는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있고 싶어 함, 지속적인 기도와 찬송을 부탁함, 신기하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위를 바라봄, 아름답고 품위 있는 임종을 기원함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의식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곁에서 손잡아 주세요.”

“ 고통 없이 정결하고 편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만들어 놓은 수의를 가져다 놓았으니 단정하게 입혀주세요.”

“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면 난 천사가 되어 갈 수 있을 거예요.”(신기하고 경이의 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로 새로운 현상을 바라봄)

연구대상자는 가족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했으며 남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이별과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고통 없이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 기도와 찬송의 지속적인 영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 후 천사로 변모되어 갈 수 있으리라는 열망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e(1995)는 말기암환자 체현에 대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타인과 절대자가 소중해지면서 신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거나 죽음을 수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주제모음 11>의 평온과 안위로는 신체적 고통을 극복하며 평안함을 느낌, 영적 지지를 통해 충만함을 느낌, 천사의 현몽을 경험함, 새로운 것의 발견을 기뻐함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어디선가 찬송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편해지고 곁에서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면 말할 수 없이 좋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요...회개와 감사의 표현일거요.."

" 잠잘 때 까만 옷 입은 사람...그땐 너무 무서웠는데 어제 밤 흰옷 입은 천사가 내 앞에 앉았다 갔어요. 지금은 아픈데도 가시고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 이렇게 자주 와 주시고 기도해주고 말씀 들려주고 찬송 불러 주는 게 내겐 얼마나 안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예요."

이상의 진술을 통해 볼 때 연구대상자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는 내용은 고통감소, 평안과 안위를 갖기 원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지지가 필요했는데 이는 영적 지지를 받은 후 또는 지지를 주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의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들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영적 고통을 경험하고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영적 요구가 높아지게 되므로 이시기에 영적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데(Kim, 1989; Choi, 1991; Yoon,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은 절대자, 인간, 질병과 죽음에 대한 복합적인 정서를 가지고, 죽음을 인식하면서 영적 자각을 통해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며,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믿으며 죽음을 수용하였고, 절대자와 이웃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였다. 또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고통과 죽음, 삶의 의미를 추구하였고, 절대자와 이웃을 향해 사랑과 관심의 요구를 나타냈으며, 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후세계를 바라보며 초월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였고, 평화스런 임종을 맞이하길 염원하면서 영적 지지를 통하여 평온과 안위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을 이해하고 이를 통

하여 암환자의 영적 간호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기초하여 영적 간호중재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1월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말기암환자로서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살 수 없으며 더 이상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 받은 자이며 연구대상자 수는 6명이었다. 각 대상자별로 수 차례씩 총 50회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40분으로 평균 면담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비 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또한 특성상 녹음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와의 만남 이후 가능한 한 즉시 기록하는 기억 기술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분석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기암환자의 영성체험은 절대자, 인간, 질병과 죽음에 대한 복합적인 정서를 가지고, 죽음을 인식하면서 영적 자각을 통해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며,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믿으며 죽음을 수용하였고, 절대자와 이웃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였다. 또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고통과 죽음, 삶의 의미를 추구하였고, 절대자와 이웃을 향해 사랑과 관심의 요구를 나타냈으며, 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후세계를 바라보며 초월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였고, 평화스런 임종을 맞이하길 염원하면서 영적 지지를 통하여 평온과 안위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말기암환자는 영성체험에서 복합적인 정서를 가지고 역설적인 반응을 각기 독특하게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말기 진단으로 인한 충격과 신체적인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육체의 소멸에 대한 허탈감, 가족에 대한 의무감, 헤어짐에 대한 슬픔 등의 반응일 수 있으므로 이들의 표현을 공감해주고 환자와 가족 구성원의 특별한 요구를 파악하여 총체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대상자 중에서도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받으며 환

자와 가족의 영적 요구에 부응하여 적절한 영적 지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남은 생애를 편안하고 생기 있게 살며 평온과 안위를 가지고 죽음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음을 볼 때 영적 간호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건강관리자는 전인적인 개념의 인간을 이해하고 말기암환자의 영적 간호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간호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상황에 있는 독특한 개별적인 반응을 가진 말기암환자 영성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결과는 말기암환자를 위한 영적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제언한다.

References

- Barker, E. (1989). *Being whole: Spiritual well-being in Appalachian woman a phenomenolog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Texas.
- Burns, P. (1989). The experience of spirituality in the well adult; A phenomenolog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Denton.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69-77.
- Burkhardt, M. A. (1991). *Exploring understanding of spirituality among woman in Appalach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Coral Gables. Florida.
- Choe, W. S., & Kim, S. (2002). Signs and symptoms during dying process of hospice patients. *Korean J of Hospice Care*, 2(1), 75-86.
- Choi, G. O. (1991). The dying experience of terminally ill patients with cancer. Doctoral dissertation of Yonsei University.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lkins, D. N., James, L., Hughes, L. L., Andrew, J., & Cherryl, S. (1998). Toward a humanistic-phenomenological spirituality-definition, descrip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8(4), 5-17.
- Fish, S., & Shelly, J. A. (1978).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 Goddart, N. C. (1995). Spirituality as integrative energy; A philosophical analysis as requisitic precursor to holistic nursing practice. *J of Advanced Nurs*, 22, 808-815.
- Haasem J. E., Britt, T., Coward, D. D., Leidy, N. K., & Penn, P. E. (1992). Simultaneous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 analysis of spiritual perspective, hope, acceptance and self-transcendence.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4(2), 141-147
- Howden, J. W. (1992). Development & p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Kim, K. J., & Lee, B. S. (1998). The conceptual analysis of spirituality. *J of Adult Nurs*, 10-3, 460-468
- Kim, Y. S. (1988). Attitude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toward death.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M. R. (2002). Concept analysis of the spirituality in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M. R., & Lee, W. H. (2001). Hospice volunteer's attitude toward care of the

- dying. The Korean J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4(1), 57-67.
- Lee, O. J. (1995). Lived experience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 parses human becoming methodolog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McSherry, W. M., & Draper, P. (1998). The debates emerging from the literature surrounding the concept of spirituality as applied to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4), 683-691.
- Meraviglia, M. G. (1999). Critical analysis of spirituality and its empirical indicators.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7(1), 18-33.
- Min, S. Y. (2001). Concept analysis of the spirituality. J of Nursing Science, 13-2, 59-67.
- Oh, P. J., & Kang K. A. (2000). Spirituality: Concept analysis. J of Kor Nurs, 30-5, 1145-1155.
- Oh, P. J., & Kang K. A. (2001). The experience of spirituality. J of Kor Acad of Nurs, 31(6), 967-977.
- Reed, P. G. (1992). An emerging paradigm for the investigation of spirituality in nursing.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5, 349-357.
- Sandelowski, M. (1986). Focus on qualitative methods: Sample size in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 179-183.
- Seaward, B. L. (1991). Spiritual wellbeing : A health education mode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2(3), 160-169.
- Taylor, E. J., Amenta, E., & Highfield, M. (1995). Spiritual care practices of oncology nurses. Oncology Nursing Forum, 22(1), 31-39.
- Trice, L. B. (1985). *Human spirit as a meaningful experience to the elderly. A phenomenolog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Denton, Texas.
- Wright, K. B. (1998). Professional,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 for spiritual care in nursing.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0(1), 81-83.
- Yoon, M. O., Park, J. S. (2002). The effect of spiritual nursing intervention on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hospice patients. J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4(3), 337-347.

- Abstract -

Live Spiritual Experiences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Yoon, Mae Ok*Park, Jeong Sook**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the basic framework for spiritual nursing intervention by understanding live spiritual experience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study duration was from July 2002 to January 2003,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atients who were expected to live less than six months. The number of subjects was six and the average time of each interview was about an hour. **Metho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ethod of phenomenological study analysis, which Colaizzi (1978) proposed. **Result:** Through live spiritual experiences, terminal cancer patients showed complex emotion about the Absolute, human, disease, and death; depended on the Absolute through recognizing death and spiritual acknowledgement; recollected the past life; accepted death believing salvation and immortality; recovered relationships with others through forgiving and reconciling with the Absolute and neighbors. Also, they pursued the meaning of pain, death,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and life while feeling pain; demanded love and concern to the Absolute and neighbors; had a sense of futility about life and a hope for the future life; transcendental energy towards the world after death. Wishing to have a peaceful end to life, they felt peaceful and comfortable.

Conclusion: Terminal cancer patients want to

meet a peaceful end to life with a hope for the future and accept the meaning of death with peace and comfort minds(##-minds), which will allow them to carry on peaceful and satisfactory day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us, it is very important for caregivers to let them have spiritual experiences and care for them.

Key Words : Live spiritual experiences,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